

내 음악엔 '벽'이 없다



피아노와 지휘, 작곡과 편곡까지 겸하는 러시아의 미하일 플레트네프는 "지휘봉을 잡고 있던, 피아노 앞에 앉아 있던 음악은 언제나 하나"라고 말했다.

피아노·작곡·편곡 이어 오페라 지휘까지... 클래식계 만능맨 플레트네프

지난 20일 일본 도쿄의 NHK홀, 섬세 30도를 바라보는 후퇴지근한 날씨였지만, 3800여 석의 객석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었다. 러시아 명문 불쇼이 극장이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스페이의 여왕》을 연달아 사용한 공연한 무대였다. 연출가 발레리 포킨은 별다른 색상 없이 무대를 2층으로 수직 구분한 뒤, 뚜렷한 조명 단조를 통해 한편의 그림자극 같은 효과를 냈다. 흑백의 짙은 대비가 무대에 드리우자, 마치 카드놀이의 스페이드와 같은 환상이 펼쳐졌다.

무뚝뚝한 표정의 지휘자가 박수 속에 연단으로 등장하고 지휘봉을 들자, 러시아 특유의 강렬 금관과 비극적 현악이 극장에 감돌기 시작했다. 피아노 연주와 오케스트라 지휘, 작곡과 편곡이 이어 최근 오페라 지휘자로 데뷔한 미하일 플레트네프(Mikhail Pletnev)의 화려한 신고식 무대였다. 3시간 30분의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의 환호성도 무대

한복판에 올라온 플레트네프에게 집중됐다. 플레트네프는 21세 때인 1978년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피아니스트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소련의 개혁·개방 시기였던 1990년 러시아 최초의 민간 교향악단으로 꼽히는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RNO)를 창단하며 지휘를 겸업했다. 인터뷰에서 플레트네프는 "당시 많은 음악가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악단을 만들고 제안했다. 처음엔 지휘를 한다는 사실이 낯설었지만, 민주적 변화의 시기였고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기억했다.

이듬해 플레트네프의 지휘로 발표한 이들의 첫 음반인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은 전 세계 평단의 절찬을 받았다. 위기가 곧바로 기회가 된 셈이었다. 플레트네프는 2006년 직접 지휘와 연주를 도맡으며, 베토벤의 교향곡 9번(9곡)과 피아노 협주곡 9번

(5곡)까지 잇달아 녹음하는 저력을 보였다. 그는 "음반사 측에 '지금 내가 아직 살아 있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중요한 계획은 지금 하자'고 설득했다"며 웃었다.

플레트네프는 작곡가로서 비올라 협주곡과 첼로 소나타 등을 꾸준히 발표하고, 프로코피예프의 《신데렐라》를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해 편곡해서 동료 피아니스트 마르타 아르헤리치와 함께 연주하는 등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만능 음악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그런 구분은 매니저나 언론인들이 하는 일이다. 나 자신은 삶이나 경력, 음악을 구분하지 않는다. 때로는 관객으로 때로는 작곡가나 지휘자, 연주자 음악을 즐기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휘봉을 잡고 있던, 피아노 앞에 앉아 있던 언제나 음악은 하나"라는 것이다.

그는 소련 붕괴 전인 1980년대 평양에서 독주회 초청을 받았다. 이틀간 체

류 일정으로 방북(訪北)했지만, 정작 평양에 도착하자 김일성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조선은 하나》를 협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사실상 명령이었다. "곡이 너무 까다로워서 힘들다고 했더니, 그럼 이틀이 아니라 2주간 머물러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당장 연주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모스크바로 돌아가면서도 또 다시 불협합곡이 내심 불안했어" 이 협연 뒤에 플레트네프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이 곡을 연주한 가장 훌륭한 피아니스트'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무사히 돌아와서 명피아니스트 호르비츠의 연주회에 참석한 것이 훨씬 내 기억에 오래 남아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성현 기자** (별명)danpachosun.com



28일까지 세종M씨어터에서 공연되는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로맨틱 코미디 vs 대하 드라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노르마' 나란히 막 올라 "풍문이란 깃털처럼 가볍고, 산돌바람에도 실려 운다. 풍문이 얼마나 사람들을 간절하고 괴롭히고 교활한지 말할 드리오" 흥성이 울리지 않고 유혈이 낭자하지 않을 뿐,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도 개략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점보전 이긴 마산까지다.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에서 로지나와 마음을 얻기 위해 알라비나 백작이 신분을 감추고 잠입에 성공하자, 경쟁사 바르톨로메는 이렇듯 거짓 정보를 흘리며 역(逆)공작을 치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백작과 로지나 커플의 한판승으

로 끝나지만, 로시니의 선율에 실려 유쾌하게 그려진 희극이 된다. 서울시오페라단이 24일부터 세종M씨어터에서 막을 올린 작품이 바로 《세비야의 이발사》였다. 첫날 무대에서는 피가모 역의 바리톤 송기창이 흥 큰 처음으로 중음을 넘겨놓아 감동, 바리톤 박경중(바르톨로메)와 베이스 김민석(발리리오) 등 조역들이 감칠맛 나는 연기로 생동감을 더했다.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아쉬움은 남았지만, 정치 화변과 춤 동작을 결합한 세련한 디테일로 소극장 오페라의 재미를 살렸다.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28일까지 세종M씨어터, (02)399-1783
▶베리니 《노르마》, 25-28일 예술의전당, (02)586-5282

클래식 ABC

시작은 초라했으나... 열정으로 이뤄낸 명품 음반사

영국 음반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에드워드 페리(Perry)는 은행 대출 1만 2000파운드를 받아 1980년 음반사를 차렸다. 회사 규모는 작았지만 명칭만큼은 야심만만하게 태양신(神)의 이름을 따서 '하이퍼리온(Hyperion)'이라고 지었다.

밤에는 택시를 몰면서 녹음 비용을 마련하고, 주말에는 집 부엌에서 배송용 음반을 직접 포장하면서 회사 살림을 꾸렸었다. 중세 성가(聖歌) 음반 등이 인기를 얻으면서 자금 여력이 생기자, 페리는 세계 최고의 가곡 성악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가곡의 왕' 슈베르트가 남긴 700여곡의 가곡을 40장의 음반으로 모두 녹음한다는 '무모한 도전'이었지요.

하지만 뛰어난 가곡 반주자인 피아니스트 그레이 존슨이 프로그램 선정을 맡고 제니 베이커와 엘리 아벨링 등 노(老)가수들이 참여하면서 계획은 점차 구체화됩니다. 페터 슈라이어, 에디타 타보르니카, 토마스 헨스 같은 기성 스타와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Schnabel과 마리아스 그르네 같은 신진들을 발굴하면서, 15년에 이르는 작업 끝에 2000년 무사히 대장정을 마칩니다.

페암 투병 끝에 2003년 71세로 숨을



음반사 '아르모니아 문디'의 창업자인 베르나르 쿠타스

거를 때까지 페리는 피아니스트 안젤라 휴이트의 바흐 건반 음악 전곡 녹음을 비롯해 굵직하면서도 울곧은 기획으로 "클래식 음반업계가 이뤄낸 최고의 성취 가운데 하나" (음악평론가 노먼 레브레히트)라는 상찬을 받습니다. 20세 때 수도사로 종교에 귀의하기도 했던 베르나르 쿠타스(Cutaz)가 프랑스 남부의 소도시 아를에서 음반사 '아르모니아 문디(Harmonia Mundi)'를 차린 것이 1958년입니다. '세계의 조화'라는 이름의 이 음반사는 카운터테너 알프레드 델라와 전속 계약을 맺고, 르네상스와 바로크 등 고(古)음악에 전념하면서 외길을 걸었지요. 영국 작곡가 파셀의 오페라 《아더 왕》

음반 등 이전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품들을 집중 조명하면서, 지금은 세계 5개국에 지사를 내고 3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유수의 음반사로 성장했습니다.

음반 시장이 부침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독립 음반사들은 음악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연주자를 발굴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베이스 연주자이자 재즈 애호가인 만프레트 아이허(Mischer)가 독일 판에서 음반사 ECM을 차린 것이 1968년입니다. ECM은 키스 재트 같은 재즈 연주자뿐 아니라 스티브 라이히와 아르보 파트르 같은 현대음악 작곡가들과 꾸준히 협력하면서, 음반사의 이름을 명품 브랜드로 키워냈습니다. 1973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비스(BIS)는 초기에 배송 비용을 아끼기 위해 유보자에 CD를 담아 대중교통을 타고 움직여야 할 정도였지만, 시벨리우스·닐센 등 북유럽 작곡에서 감정을 보여주는 음반사로 평가받습니다.

종이하는 음악을 녹음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대를 이어 음반에 종사하는 이들의 음악 사랑에서 선별된 '클래식 음반의 죽음'을 이야기하기에 아직 이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성현 기자

'브로드웨이 42번가'에 풍덩 빠져보세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가 24일 오후 서울 이태원의 한 수영장에서 이색 포토틀을 개최했다. 쇼걸들의 탭 댄스가 중요한 이 뮤지컬은 하체 라인을 심사 포인트로 배우 오디션을 진행했다. 선발된 배우들(평균 신장 172cm)이 스웨트슈트와 레이스가 화려한 탭 댄스 의상을 입고 서 있다. 공연은 7월 21일 LG아트센터에서 개막한다.

공연 소식

- 합창단 '음악이 있는 마을'이 7월 5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운서 서울스프링페스티벌의 위촉 작곡가였던 강은수를 초청해서 창작 합창 축제로 꾸민다.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도중환의 (혼자 사랑) 등 애송곡에 곡을 붙인 작품들과 함께 (내일을 위한 미사)를 초연한다. 070-7139-8662
- 플루티스트 이예린이 29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에서 독주회를 연다. 이예린은 프랑스 리옹 음악원과 독일 뮌헨 음대에서 수학한 뒤 스위스 플루트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효린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네케의 (발라드), 올리베의 (리노스의 노래) 등을 들려준다. (02)586-0945
- 안애순무용단의 현대무용 《불쌍》(안무 안애순)이 25-26일 LG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인도의 카타크(Kathak), 한국의 진도 북춤과 임춘, 중국 전통무예, 몽골의 민속무용 등 다양한 춤사위를 새롭게 해석해 낯선 움직임이 보여준다. (02)2005-0114
- 극단 한양레퍼토리의 연극 《한여름 밤의 꿈》(연출 최형인)이 27일부터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여러 커플의 뒤엉킨 사랑을 그린 셰익스피어의 희극이다. 최용민 류태호 안내상 이문식 임유영 김효진 등 친숙한 배우들이 출연한다. (02)3672-8070

대표전화 02)2001-4500
redcaptour.com

동남아 2001-4770~7

방콕/파타야 4대읍선 5/1일
499,000~

7/11,12,13,14,15,16,17,18,19,20

7/21,22,23,24,25,26,27,28,29,30

필리핀 특별전세기 2001-4777

GRAND OPEN 세부 임페리얼 펠리스
4/5/6일 899,000~

7/13,14,15,16,17,18,19,20,21,22,23,24,25,29

캠/사이판 2001-4780/84

Redcap kids Land 레드캡어린이 어린이 특별 프로그램
하하, PIC 나눔 씨와 영아 캠프 체험
둘, PIC 어린이 미니 올림픽 개최

PACIFIC ISLANDS CLUB PIC 골드 699,000~

팔 & 사이판 7-8월 여름 성수기
조/기/예/악/특전

지점 및 전국 예약센터

부산지점 645-2002
대전지점 488-8626

유럽 2001-4720~6

왕대박찬스!
정상가 2,990,000 → 2,890,000부터

러시아/북유럽 2001-4722~3

정상가 2,990,000 → 2,890,000부터

미주/캐나다 2001-4736~7

정상가 1,990,000 → 1,290,000부터

일본 2001-4750~3

정상가 1,990,000 → 1,290,000부터

중국 2001-4740~2

정상가 1,990,000 → 1,290,000부터

중국 2001-4740~2

정상가 1,990,000 → 1,290,000부터